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제958호

‘수업시간표 편성지침’ 한산한 금요일의 캠퍼스

우리대학의 내진설계 상황은?

금요일 개설 강의 전체의 6.2% 그쳐

교수도 학생도 금요일 수업 기피

금요일 캠퍼스가 한산하다. 금요일에 열리는 강의가 거의 없어 학생들이 캠퍼스를 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과에서 입수한 ‘대학별 수강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 2학기 전공 강의 중 금요일에 진행되는 전공 강의는 91개밖에 없었다. 현재 제주대의 전공 수업은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1460 개가 개설돼 있다. 금요일에 진행되는 강의는 전체의 6.2%뿐이다. 특히 인문대학은 금요일에 개설돼 있는 전공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

금요일 강의는 2015년 2학기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5년 2학기부터 금요일 1~4 교시를 보강을 위해 비워두고 있다. 또한 금요일 오후에는 학군단 강의로 인해 3, 4학년 강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

고현정(학사과) 실무관은 “휴·보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2학기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지침’을 통해 금요일 1~4교시 강의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교수 대부분은 이를 반기고 있다. 학생들은 월~목요일에 강의를 우선 신청한다. 이 경우 금요일에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수들도 세미나를 강의가 없는 금요일에 열 수 있어 호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전 8시 40분에 정문에서 출발하는 교내버스가 만석이지만 금요일은 남는 자리가 많았다. 백두관식당, 아리와 등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또한 오후 6시경에 정문 앞 시내버스정류장 앞에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생활협동조합의 한 직원은 “요즘 금요일 캠퍼스가 10여 년 전의 토요일 캠퍼스 분위기 같다”며 “다른 평일에 비하면 금요일에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금요일에 강의가

없어 강의 시간표를 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조기졸업을 계획하거나 편입으로 제주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시수의 학점을 들기에 4일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3학년인 A씨는 “2학년 2학기 때 개인적인 일로 인해 강의를 많이 듣지 못해 이번 학기에는 많은 시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금요일에 강의가 개설돼 있지 않아 시간표를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같은 시간, 다른 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정문 앞 임시버스정류장(왼쪽)과 같은 시간 월요일 정문 앞 임시버스정류장(오른쪽)의 모습. 좌우가 확연히 대비된다.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없어 연기

27일부터 후보자 재등록

10월 19일 투표 통해 결정

제8대 교수회장을 뽑는 교수회장 선거가 10월 12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10월 12일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한 교수는 전무했고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입후보자 등록을 하

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익명의 교수는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내년 총장선거를 비롯해 할 일이 많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많은 교수회장을 하려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된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선거는 1차투표와 2차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 선거장소는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의학전문대학원 회의실, 사리캠퍼스 회의실

이다.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 당일 기준 정교수 이상이다.

입후보자 등록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 까지 가능하다. 단 주말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입후보 등록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된다.

등록시 제출서류는 교수회장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입후보소견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연구실 방문, 전자통신 선거(전화, 문자, 메일, 전자게시판) 등이다. 하지만 유인물의 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754-208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해건 기자

해군학군사관후보생 모집

학생군사교육단이 9월 30일까지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주역이 될 2017학년도 해군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9월 3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5일에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시험인 신체검사와 체력 평가, 면접 등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자 발표는 12월 14일이다. 선발될 경우 국방부 장려금 등의 여러 장학금 혜택과 입관 이후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받는다. 지원서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군단(064-755-6188)로 할 수 있다.

김해건 기자

청년 취업박람회 10월 4일 열린다

2016년 청년 취업박람회 ‘잡아라 페스티벌(JOB ARA FESTIVAL)’이 오는 10월 4일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취업전략본부, 제주대학교 RINC사업단,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주관한다. 개회식은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취업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또한 기업탐방과 해당 기업의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특강을 통해 저학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제주영업지부, (주)블랙야크, (주)제주항공,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

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총 5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45개의 기업이 채용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취업전략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에게 미리 접수한 학생에 한해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채용정보 및 취업 컨설팅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취업특강, 우수기업탐방, 모의면접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며 타로, 네일아트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취업박람회 참가자 선착순 4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며 다양한 경품행사도 준비돼 있다.

김동현 기자

신재생에너지 답은 풍력발전입니다

육·해상풍력에 특화된 석·박사 인재양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 ▶ 원 서 접 수 : 2016. 10. 24.(월) 10:00 ~ 10. 27.(목)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 ▶ 선 발 방 법 :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
(면접은 기본적인 소양, 학구적 태도, 입학 후 학업계획, 영어구술 능력 등을 평가함)
- ▶ 면 접 시 험 : 2016.11. 08(화) 10:00 ~
- ▶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 ▶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 · 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 · 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박사과정: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 지원 자 격 : 전공제한은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선관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
대학원 풍력공학부 홈페이지 <https://gwe.jejunu.ac.kr>
공시사항의 ‘2016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예비신입생을 위한 풍력공학부 소개’ 참조



2017년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모집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제주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1.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학비지원(Full Time)

※ 최근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풍력 O&M 기술 고급트랙”
(시작기간 : 2016.7월 ~ 2021.6월) 과제를 통해 지원 (국비지원)

2.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릴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3.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 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국내 : 한국남부발전, 한국선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국외 :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Romax 등)

4. 국 · 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사라캠 학생 78% 캠퍼스 이전 반대

캠퍼스 분리로 행정·재정적 한계 느껴 이전 추진
대화 통해 합의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사라캠퍼스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교직원과 사라캠퍼스 재학생 간의 입장 차가 매우 커 학교 측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학교 측은 교육대학 캠퍼스의 공간적 분리로 교육대학 학생들의 아라캠퍼스 시설 활용에 한계를 느끼고, 캠퍼스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 재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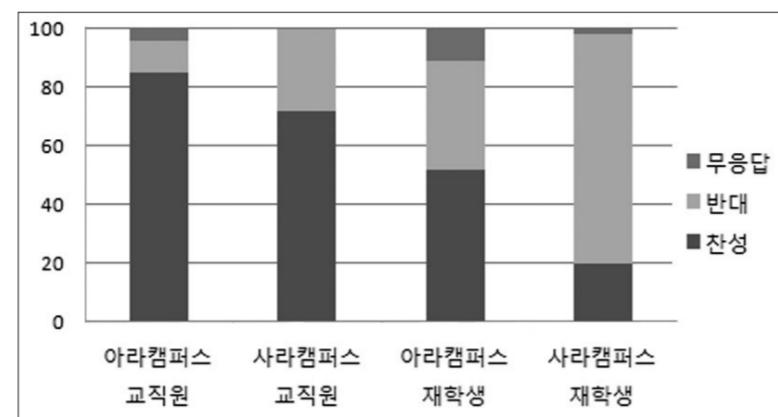
또한 교육 및 인적교류 부분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느꼈으며, 교육대학 학생들이 아라캠퍼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라캠퍼스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내용은 캠퍼

스 통합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에는 학내 구성원들이 캠퍼스 통합에 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 내용으로는 교육대학 이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조사, 교육대학 이전 타당성 진단, 신축 건물 규모 및 공간 배치 등 5개 항목이었다.

설문은 2016년 5월 10일부터 4일 간 아라 및 사라캠퍼스 전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사라캠퍼스 재학생(228/473)은 48.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교직원은 (32/58)로 55.2%, 아라캠퍼스 재학생(921/974) 9.5%, 교직원(201/1005) 명이 응답했다.

결과는 상반됐다. 사라캠퍼스 재학생은 78%가 이전 반대로 응답했고, 아라캠퍼스 재학생은 52% 찬성으로



찬성이 많은 교직원에 비해 두 캠퍼스의 학생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답했다. 두 캠퍼스의 교직원은 모두 80%로 정도로 찬성의 입장은 보였다.

사라캠퍼스 학생들은 시설·공간의 미확보, 실습의 어려움, 공용 공간 활용상의 불편 발생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의명의 교육대학 학생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왜 캠퍼스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며 “캠퍼스를 옮겼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온전히 보존되

지 않으니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훈(정치외교학과 2) 씨는 “두 개의 캠퍼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결국 이전을 하는 쪽은 사라캠퍼스 학생들이니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아직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경상대학, 제자·후배사랑 책 나눔 행사 개최



경상대학(학장 강영순 경영학과 교수)과 경상대학 학생회(학장 김민수 관광경영학과 4)가 9월 6일 경상대학 1호관 주차장에서 ‘후배사랑·제자사랑 책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들을 기증하고 학생들은 졸업 및 학년 진급시 활용하지 않는 전공서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다른 전공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재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나눔과 자원절약을 실천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7기 원우회, 세정대학 과정 8기 원우회에서 각 50만원씩 발전기금을 출연해 경상대학 학생들의 전공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행사에선 경상대학 교수들이 기증한 전공서적 및 교양서적 100여권,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구입한 50권의 전공서적, 학생들이 기증한 80여권 등 230여권의 책이 선보였으며 도서기증 및 도서교환권 배부는 학생회에서 맡아 진행했다.

김해건 기자

총여학생회 축제 '제대의 마블' 28일 개최

‘군세여’ 총여학생회(회장 장여진 회계학과 4)의 축제(주제: 제대의 마블)가 9월 28일 오전 11시부터 학생회관 한라터 일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부스별로 한국

부스에서는 뽁기 이벤트, 태국 부스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견 듣기, 필리핀·독일 부스에서는 먹거리가 운영된다. 미국·스위스 부스에서는 정책소통

부스, 마카오 부스에서는 게임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나라의 부스를 통해 플리마켓, 드라이플라워꽃, 디발·파우치·태슬리퀴걸이 만들기 부스 등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학생회관 4층 옥상에서 영화관람이 운영된다.

김해건 기자

WI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제주지역센터(센터장 김소미)가 9월 8일 제주대 교양강의동에서 이승희 S&people 대표를 초청, 공학계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Gendership & Leadership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주제는 ‘여성이 미래다!(부제: 여러분의 사다리는 제대로 놓여있나?)’이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Gendership과 Leadership’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현실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이론보다 사례 중심의 강연이라 이해하기 쉬웠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의견을 보였다.

제주대 LINC사업단은 “청년사업가들에게 네트워킹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며 “이번 캠프가 제주·호남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네트워킹의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풍노도의 ‘대2병’… 휴학·전과로 이어져

진로·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많아

잠시나마 취업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

“휴학할 생각이에요”, “취업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해요”, “직성과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질문을 하면 으레 막막하다거나 전공이 자신과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허다하다. 대체로 복잡한 취업문제로부터 휴식을 위해 또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소속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을 때 깨닫고 전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시기 혹은 모습을 일컬어 ‘대2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 병에 해당한다. 극심한 휴학난 속 학생들의 괴로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빠져나와 대학생임을 만끽하며 1년을 보내고 나면 어느덧 대학교 2학년이 된다. 그러나 대학생 생활의 낭만도 잠시 학생들은 다시 취업경쟁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휴학을 고민했다는 위치현(원예환경학과 2)씨는 대2병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대2병은 제가 알기로 취업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 나도 한 대2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대학생 생활 중 휴학을 고민했던 시기 있었다. “학과가 적성에 잘 맞는지 고민이 많던 때였다. 더군다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느 하나 잘 해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성적은 떨어지고 학과에 흥미를 잃게 돼 휴학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는 여느 학생들이 그렇듯

김정희 기자

WISET센터 공학계열 학생 대상 특강 열어

WI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제주지역센터(센터장 김소미)가 9월 8일 제주대 교양강의동에서 이승희 S&people 대표를 초청, 공학계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Gendership & Leadership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주제는 ‘여성이 미래다!(부제: 여러분의 사다리는 제대로 놓여있나?)’이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Gendership과 Leadership’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현실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이론보다 사례 중심의 강연이라 이해하기 쉬웠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의견을 보였다.

LINC사업단 캠프 개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이상백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이 9월 22~24일 루체빌리조트에서 제주대와 호남지역 7개 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제주·호남지역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제주대 Start Up Weekend 캠프’를 개최했다.

창업동아리 학생 38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창업아이템을 발표하고 팀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피칭’을 통한 창업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창업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멘토링’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창업동아리 학생 38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창업아이템을 발표하고 팀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피칭’을 통한 창업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창업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멘토링’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김동전 단장은 “우리 사업단이 창의적 인문학 교육을 통한 미래형 한국문화콘텐츠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문화원형·스토리텔링 심화과정,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문화콘텐츠 현장답사 등 사업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지영 기자

문화콘텐츠사업단, 특성화사업 설명회 열어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전)은 9월 13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특성화 사업단 참여학과(사학과·국어국문학과) 1~2학년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한국문화콘텐츠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문화원형·스토리텔링 심화과정,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문화콘텐츠 현장답사 등 사업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전 단장은 “우리 사업단이 창의적 인문학 교육을 통한 미래형 한국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창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치완

편집국장 김해건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277-9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 JUMP news.jejunu.ac.kr

사람들

현명택(기계공학과) 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현명택(기계공학과) 교수는 9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산학연유공자 포상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특히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17회 수행했고 최근 3년간 특히 11건, 참여연구원 취업 5명, 기술지주회사 자체 8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역임하면서 연간 15개 내외의 창업기업을 지원 중이다. 현 교수는 그간 대학내에서도 산업체와 대학이 협력해 기술개발, 인재 양성,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장을 등을 역임해왔다.

김해건 기자

석사과정 김맹범·고민영씨, 우수 논문 발표상

교육대학원 초등과학교육전공 석사과정 김맹범·고민영씨(지도 교수 홍승호)가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주최로 최근 춘천교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제목은 ‘내진 설계를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과학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로 창의적 인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과학 수업의 전략과 효과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초등과학의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지진에 대한 내용 중 내진 설계에 중점을 둘 최근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수 있는 주제를 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흥미를 제공하고 지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맹범씨는 현재 삼성초등학교 교사, 고민영씨는 동광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희 기자

고창훈(행정학과) 교수, 출판기념회 열어

제주대 세계환경과 섭 연구소가 22일 오후 4시30분 제주 4·3 평화 공원내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고창훈(행정학과) 교수 정년퇴임 기념 제주 4·3 대비극 (Jeju 4·3 Grand Tragedy) 영문책 국제공동논문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학내교통 이대로 팬찮은가 <1> -무분별한 차량출입

출입증 발급받지 않아 주차문제 심각해

주차공간은 많으나 특정구역에만 몰려
총무과 “통제시스템기 통해 제재 예정”

지리적으로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한 아리캠퍼스에 오기 위해서는 버스·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교내·외 교통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현재 아리캠퍼스는 속·불법주차·무단주차 등 다양한 교통 문제로 인해 학내구성원들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제주대에는 어떤 문제를 일어나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많은 차량들 그리고 주차문제

대학에 들어오는 차량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016년 9월, 현재 대학에서 발급한 출입증은 △교직원 629개 △학부생 428개 △대학원생 467개 △기타 60여개 등이다. 학부생 중 1, 2학년 학생들은 차량을 가져와도 교내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3, 4학년 학생들은 교통출입증을 베부 받아야만 교내에 주차가 가능하다. 출입증 기한은 1년이며 처음 발급받을 시 수수료

가 재학생은 3만원, 교직원은 월 5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체감하듯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들이 교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몇몇 학내구성원들은 “학교에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차량의 증가는 곧바로 주차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단과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시설 건물 앞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도 주차돼 있다.

하지만 차량이 많다보니 건물 앞뒤의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대의 주차공간 규모는 약 3000대가 수용 가능할 만큼 넓은 공간이 있지만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인 단과대학 등 일정건물 주변에만 주정차된 차량이 많을 뿐 친환경농업 센터, 제2도서관 주변, 아리컨벤션홀 주변 등 학교의 외곽부분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 해결책은 있나?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출입증 미부착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차량은 주차딱지를 붙이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차량운행에 대한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경원(행정학과) 교수는 본지(953호-자동차 없는 캠퍼스를 꿈꾼다)에서 주차관리의 기초가 되는 캠퍼스 출입 및 주차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에 차등적 비용을 부과해 운전자의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학내 가

장 혼잡한 지역의 차량통제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학교 측은 통제시스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아직는 의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무과 김태한 실무관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며 “내년부터 차량 통제시스템기를 통해 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제시스템기가 설치되면 기본 30분은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1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부담가중을 통한 제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텅 비어있는 아리컨벤션홀 뒤 주차장의 모습.



22일 아리뮤즈홀에서 박웅(음악학부)교수가 음악학부 3학년에 재학중인 강은지씨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해건 기자

생명화학공학전공, 전국 상위권 평가

상 50% 미만의 중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 도입돼 올해 23년째를 맞고 있다.

평가지표는 △전입 1인당 국제학술지논문 2위, 재학생 중도 탈락률 2위, 전입 1인당 국제학술지논문 3위 등을 기록하면서 평가대상 44개 대학중 전국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대는 중앙일보 대학 학과평가 결과 생명화학공학전공이 10% 이상 25% 미만의 상위권으로 판정을 받았다.

생명화학공학전공은 12개 평가지

표중 전임교원(이하 전임) 1인당 외

부지원연구비 1위, 전임 1인당 자체 연구비 1위, 전임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2위, 재학생 중도 탈락률 2위, 전입 1인당 국제학술지논문 3위 등을 기록하면서 평가대상 44개 대학중 전국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경영학과는 평가대상 69개 대학중 전임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1위, 중어중문학과는 52개 대학중 전임 1인당 자체연구비 2위, 컴퓨터공학전공은 72개 대학중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4위를 기록하면서 25%이

법전원, 교류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진행

평생교육단과대학 4개 학과 신설된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등 신설

수시모집에서 154명 중 49명 지원해 미달

홍보팀 구성해 적극적인 홍보할 것

발도 않고 탈도 많았던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인 ‘미래융합대학’이 내년 신설을 앞둔 가운데 우리대학은 4개 학과가 신설된다.

신설될 학과는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이다.

건강뷰티향장학과는 전통적 뷰티와 의생명과학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메디컬 뷰티의 조화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뷰티 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이다.

관광융복합학과는 농, 산, 어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융·복합 관광 분야에 접목시켜 지역 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강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액션리닝 학습,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창의성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관리학과는 자격증 취득과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 정책, 개발, 평가, 관리운영 및 분석 등 종합적인 부동산 분야를 다룬다.

실버케어복지학과는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고령사회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철학과 인성, 정책적 비전, 실천적 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구성돼 있다. 향후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미래융합대학은 연 4학기제이며 야간, 주말과정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겸해서 진행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를 선발하는 재직자 전형과 만 30세 이상 국내고등교육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평생학습자 전형이 있다. 수시모집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로 모집이 마감됐으며 정시모집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이다.

등록금은 신청하는 학점만큼 납부

하는 방식으로 인문사회계열은 학점당 10만1000원이며 자연계열은 학점당 12만4000원이다.

한편 21일 마감된 수시모집에서는 모집인원 154명 중 49명이 지원해 모집인원이 미달됐다.

수시모집이 저조한 것에 대해 기획 평가과 현창철 주무관은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평생단과대학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화여대 사태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 수시모집 결과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학관리과에서 홍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정시모집에서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기자

수시모집 경쟁률 평균 3.42대 1

제주대는 9월 21일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188명 모집에 4063명이 지원해 평균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는 일반학생 2 전형 예수의예과가 2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37.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

과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16일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체육학과, 취업캠프 개최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학과장 김미에 체육학과 교수)가 9월 8~9일 자연대 세미나실과 서귀포연수원에서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체육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취

업캠프에선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의 ‘세상은 문밖에 있다’, 해피파인더 김재연 대표의 ‘나에게 직무란?’(직무와 역량의 올바른 이해)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를 쓰는 방법과 모의면접 경험을 쌓게 돼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www.ihalla.com

제주지역 신뢰도 1위! · 발행부수 1위!!

리얼미터 전국지방신문 여론조사 · 2015년도 한국ABC협회 인증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 대한의 역사, 만주에 가다 <중>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만주, 대성중학교·청산리 등 독립운동 근거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투쟁기 엿볼 수 있어

중국 동북3성 본보 해외 취재

2016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9일간 철기이법석 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전 육군중장)에서 운영하는 광복청년아카데미에서 제11회 해외사적지 탐방이 진행됐다. 선조들이 남겼던 위대한 영토인 만주를 기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편집자 주>

◇기획의 땅, 만주

단원들이 이동한 곳은 청산리 대첩비가 있는 청산리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후 선조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연해주 등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동한, 이희영 등의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했고 차지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경학사, 부민단 등을 조직했다. 또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 흥강습소(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됨)를 설립했다. 북간도에서도 중광단 등 많은 항일무장단체들이 조직됐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떨어졌을지 생각하며 차창너머를 바라봤다.

◇총성이여 울려라. 청산리 전투

어느덧 버스는 청산리대첩비가 있는 중국 연변자치주 화룡시에 도착했다. 단원들은 청산리 마을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대열을 맞춘 단원들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청산리 전투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 만주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주길림성 화룡현 청산리 백운평, 천수평, 원루구 등지에서 간도로 출병한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합해 부르는 말이다.

봉오동전투 등에서 독립군에 패배한 일본군은 훈춘 사건(1920년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해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한 사건)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만주에 독립군을 토벌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6일간에 전투에서 독립군은 화룡현 내의 여러 지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사진 위). 1920년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전투에서의 대승을 기념하고자 만든 청산리대첩기념비(옆).

보는 자리였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남는 자리였다.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버스에 탑승 후 용정시로 이동했다. 용정시에서 방문한 곳은 일제강점기 때 운동주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성중학교(현 룽정중학교)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운동주 시인의 흉상과 그의 시 '서사'가 적힌 시비였다. 시비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 책을 통해 봤기에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교 앞에서 낭독하는 시는 색다른 느낌을 줬다. 건물 2층에는 사적전시관이 있었다. 운동주의 중학교 때 사진과 화보, 책자를 비롯해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용정과 주변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다. 또한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숙 기념관도 있었다. 서전서숙은 용정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실시한 곳이다.

기념관 가이드는 용정중학교 교사들이 진행했다. 중국어가 아닌 조선어를 사용해 설명을 했는데 어조와 표현 등이 한국어와는 조금 달라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후 망명을 한 선조들이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했다.

나리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신 선조들을 생각하며 전적지와 기념비 등을 직접 눈으로 보니 숙연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 떠올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해건 기자

취업전략본부 탐방기 ① 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내 성격에 맞는 직무를 찾는 것이 취업 성공의 지름길

학생들의 목표는 대부분 취업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 한 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는 많은 학생이 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과 관련해 학교의 도움을 잘 받고 있지는 못한다.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2012년부터 취업전략본부를 두고 학생들의 취업을 돋고 있다. 이에 제주대신문은 취업전략본부의 업무를 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채용박람회,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 제도, 해외 인턴십 등 4개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피지기(知彼知已)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다. 취업에서도 마찬 가지다. 나를 알고 기업을 알아야 취업에 한 층 더 가기 쉬울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나 직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애니어그램, MBTI 같은 성격유형검사로 알 수 있다. 구직자가 기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채용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해 알아야 인재를 성공적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년 전까지는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봤다. 그 결과 소위 '스펙'이 높은 사람만 입사했고 대한민국은 '스펙'을 쌓기 위한 학생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스펙'이 높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상시적으로

직무적성검사 특강 진행

특강 참여학생 열의 높아

를 도입했다.

국가 또한 2013년부터 NCS(국가직무능력 표준)를 강화시켰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삼성은 GSAT라는 명칭으로 시험을 보고 있으며, 다른 기업도 각자의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유형검사에 비해 중요성이 크다.

취업전략본부에서는 성격유형검사와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먼저 애니어그램 등 성격유형검사를 상시적으로 열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유형으로 나눠 성격을 알려준 후 자신의 성격과 맞는 진로를 소개한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않지만 MBTI 검사도 있다. 이는 16개로 성격을 나눈다는 점이 애니어그램과 다르다.

학생들의 직무적성능력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전략본부에서는 '2016년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8회에 걸쳐 열린다. 재학생과 졸업생 67명이 특강을 듣는다. 이 특강은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채용 과정에서 진



9월 23일 '2016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이 열렸다. 특강 강사는 이시한 강사이며, 60여 명이 넘는 학생이 특강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행될 직무적성검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9월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채용설명회를 학내에서 개최하고 직무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 1학기에도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특강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9월 23일 교양동 4310실에서 열린 '2016년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 현장은 금요일에 캠퍼스는 한가했지만 그곳은 달랐다. 60여 명의 학생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특강 강사는 이시한 SH미래 연구소 대표였다. 접침을 먹고 난 뒤 진행된 강의였지만 학생들은 줄곧 기색 없이 강의에 집중했다. 쉬는 시간에도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으러 가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상환(생명화학 공학과 2016.2 졸업)씨는 "지난번 학기에도

이시한 강사에게 직무적성검사 특강을 들었는데 이를이라 짚었다"며 "이번 학기에는 8회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나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사도 학생들의 열정에 보답하듯 열변을 토해냈다. NCS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언급했고 직무적성검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시한 강사는 "현재 공사·공기업이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며 "이 강의는 직무적성검사의 원리를 이해 시켜 공기업이나 공사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펙이 낮다고 판단해 공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중국 공안에게 감시받는 탐방 왜?

사드·조선족 독립 문제로 제재 걸어 한·중 간의 관계 잘 해결해 나가야

거리의 대부분을 버스로 이동하는 탐방단에게는 항상 자동차 한 대가 따라붙었다. 뒤를 밟는 차량은 중국 공안이다. 고구려의 유적지에서든, 독립군의 전적지든 어디든 허나 다니며 감시했다.

그들의 통제 하에 있었기에 태극기를 들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국가와 관련된 행동들은 눈치를 보게 됐고 실행을 할 경우 제재당하기 일쑤였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유독 이번 탐방에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는 것인가?

탐방을 함께한 한 국방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조선족이 독립을 해버리면 다른 소수 민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안들을 풀어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서도 나오듯 중국은 현재 소수 민족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 타이베이나 위구르족처럼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륙내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G2라고 불릴 만큼 강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 내부는 경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중간의 악화되고 있는 관계도 이유 중 하나였다. 중국에 있을 7월 중순 당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갈등은 예상된 문제였는데 그 불씨가 역사탐방을 온 단체들에게도 빛이었다.

중국과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는 크나큰 타격이었다.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가 남한의 방어차원이라고 밝혔지만

태극기를 들고 올라갈 수 없었던 청산리 대첩비 앞 계단.

인터뷰 취업전략본부 김선 취업지원관

"직무적성검사가 구직의 당락 가른다"

▶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어그램 검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성격유형검사이다. 취업전략본부를 찾았던 학생들에게 검사해 주고 있다.

▶ 직무적성검사가 왜 중요한가?

NCS(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대기업·공기업·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를 필수로 본다. 서류전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스펙'을 보지만 이전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를 본다.

그만큼 NCS가 중요한데 재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도외시에 있는 대학교들은 중요성에 대해 알고 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특강도 많이 열고 있다. 우리 학교 2학기에는 NCS와 관련해 초빙강사를 초청하고 8회에 걸쳐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8일에 열린 '손에 잡히는 취업전략 아카데미'에서도 직무적성검사를 언급했었다.

9월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명회가 열렸다.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채 때 제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NCS에 대해 잘 몰라서 설명회 중간에 NCS에 대해 알려졌다.

▶ 적성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과 공기업 대부



김선 취업지원관

김동현 기자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전통혼례식

전통혼례에서 삼서정신 행해져

서천지례, 근배례 등 술을 통한 의식 많아

우리에게 결혼식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검은 턱시도를 차려 입은 신랑의 모습이 익숙하다. 피아노에서 익숙한 음악이 흐르면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식의 모습이다. 삼색의 한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모습. 시국에서만 보던 낯선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전통혼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 전통혼례 절차

신랑, 신부는 각 가정에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 가서 차례상에 차리고 누구와 혼인을 한다고 조상께 알리는 의식을 한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교훈을 받는다. 신랑과 신부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교훈대로 잘 살겠노라고 맹세한다. 본격적인 전통혼례 예식순서는 이렇다.

전안례→관세우(손 씻기)→교례(신랑 신부 맞절)→서천지례(하늘에 알림)→서배우례(신랑 신부 맹세)→근배례(술마시기)→성혼선언

'전안례'는 나무 기러기를 든 신부이며 신의 인도로 신랑이 신부 댁에 백년해로의 상정인 기러기를 예물로 드리고 신부를 대례정(신부대 마당)으로 모시고 나오는 의식이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선다. 방위는 예절 방위를 따른다. 즉, 주례가 선 곳을 북쪽이라고 지정하고 이에 맞춰 신랑 신부가 서는 방향이 결정된다. 그 후 '접등축' 불을 밝힌다. '관세우'는 신랑과 신부가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의미로 예식 전 순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다. '교례'는 신랑, 신부가 평생을 같이 하고 자 절을 주고받는 의식을 말한다.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을 한다. 원래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절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의식을 할 때는 2배로 한다. '서천지례'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의식으로 술잔을 눈높이에 두고 하늘에 서약하며 땅에 술을 세 번 비워 땅에 맹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誓)는 서약을 한다는 의미이다. '서배우례'는 일생토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의식이며 '근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천생배필의 인연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 표주박 잔에 술을 나눠 마시고 일심동체가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성혼선언'은 부부가 맹세를 선언하는 것이다.



◇ 전통혼례복

신부는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혹은 연두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원삼을 입었다. 원삼의 소매는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을 사용한 색동 소매의 형태였다. 전체적으로 금박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했고 신부의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두 손 위에는 길게 하얀 친을 뒀다. 신랑의 경우 정해진 색깔 없이 저고리와 바지, 도포를 입고 관복을 입었다.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과거 마을에는 공동으로 상례 관련 도구를 보관하는 '행상 집'이 있었는데, 혼례 용구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관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 혼례복 역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혼례당일 날 빌려 입었다.

◇ 전통혼례에 대한 궁금증

<화촉을 밝힌다>

신문기사를 보면 결혼식을 올리며 '화촉을 밝힌다'는 글들을 종종 보곤 한다. 이는 접등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조선시대에 혼례를 해가 저무는 저녁에 올렸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혼례를 올릴 때 촛불을 밝히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

또 '화촉'이란 신방을 밝히는 초를 '화촉'이라 불렀다. 밀초를 색색으로 물들인 화려한 초는 제작이 어렵고,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 사직으로 사고파는 것이 금지될 정도의 사치품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 첫날 밤이 특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었다고 한다. '화촉을 밝히다'가 '결혼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여기서 유래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촛불을 밝히는 것이 결혼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쓰이게 된 것이다.

<나무기러기>

혼례상에 올려져 있는 나무기러기는 기러기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인해 혼례 때 기러기는 길조로서 예물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연지와 곤지는 둘 다 동그란 빨간 형태이지만 뺨에 찍거나 입술에 바르는 것이 연지이고 이마에 찍는 것을 곤지라 한다. 곤지는 눈썹 사이 미간의 위쪽에 찍는다. 즉, 연지곤지는 양 볼에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어 총 세 군데 붉고 동근 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연지곤지는 짙고 아름다운 새색시, 순결한 쳐녀를 뜻한다고 한다.

<삼서정신>

혼례에서 임하는 세 가지 서약을 뜻한다. 첫째는 '서부모'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모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은혜의 고마움을 기리며 자식의 도

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전통혼례를 한 신부와 신랑, 맨 오른쪽 김성훈 정교(사진 위). 근배례 순서. 표주박 잔에 담긴 술을 마시는 신부(아래).

둘째는 '서천지'이다. 혼인이 천지의 음양이치, 즉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므로 음양의 표본이며 창조의 절대자인 초능력자, 하늘과 땅에 대해 서약하는 것으로 부부의 무궁하고 불변하는 사랑과 천지의 이치에 따르겠음을 서약하는 정신이다.

셋째는 '서배우'로 서로가 배우자에게 사랑과 신뢰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전통혼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제주향교 제29대 김성훈 정교는 "예부터 우리가 혼례를 올릴 때 삼서정신을 행하는데 현대화된 결혼예식도 좋지만 전통적인 혼례 의식을 통해 삼서정신을 기억하면 뜻 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혼례. 그 안에 담긴 음식과 의식 하나하나에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재미있고 뜻 깊은 의미가 담긴 전통 혼례식. 당신에게 있어 중요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을 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김정희 기자

》》 후쿠오카를 통해 본 일본의 모습

거리 환경, 질서의식 등 일본의 선진의식 본받아야

본지 기자 일본 후쿠오카 현지 해외 취재
일본, 역사에 남긴 과오는 뉘우치지 않아

일본은 크게 혼슈, 히카이도, 규슈, 시코쿠인 4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기자는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규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항로도 잘 개척 돼있어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또한 부산에서 배를 통해서도 후쿠오카를 방문 할 수 있다. 쉽게 방문할 수 있다보니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그래서였을까. 후쿠오카 공항을 비롯, 시내에는 한국말로 표지판이 적혀 있고 식당에도 한글판 메뉴가 존재했다. 한국인에 대한 편의가 잘 갖춰져 있다.

◇ 훌륭한 시민의식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는 가장 먼저 간 곳은 하카타다. 이곳은 많은 관광기업이 밀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다.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 규슈로 들어왔다면 기차 여행의 시작점은 하카타 역이다. 규슈 전역으로 가는 대부분의 기차가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슈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신칸센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역과 연결돼 있는데 주변에는 복합 문화 공간과 호텔 등이 있다.

일본을 처음 방문해 본 기자는 다소 놀랐다. 일본의 거리는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에 상관없지만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 태평양전쟁 당시 죽은 일본군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렇기에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분노감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고코쿠 신사였다. 신사 앞에는 '도리'라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외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색 깃발들이 여러 개 풀려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원래는 일반적인 신사였지만 후에 전쟁 당시 지역 출신 전시자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신사를 한바퀴 둘러보고 밤 걸음을 옮겼다.

다음 방문한 신사는 구시다신사였다. 해이안시대인 757년에 세워진 신사로 불로장생과 상업 번성의 신을 봉안하고 있었다. 1000년의 은행나무가 있으며 후쿠오카의 어름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야마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다. 신사내부에는 소원을 적는 곳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종을 치며 참배를 하기도 했다. 고코쿠신사와는 다르게 구시다 신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다. 다소 유명한 신사인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알고보니 이곳은 일본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사용한 칼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외부인에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칼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들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 신칸센을 타고 고쿠라역으로

신사를 구경한 후 다시 하카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시로 이동하기 위해 신칸센에 몸을 실었다. 표를 끊는 모든 과정이 한국어로 돼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안내방송은 모두 일본어였다. 그렇기에 움직이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고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다행히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신칸센에 탑승했다. 신칸센은 한국의 KTX와 비슷한데 다소 요금이 비싸긴 했지만 그 속도는 엄청났다. 일반열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를 신칸센은 단 17분만에 갔다. 고쿠라역에서 하차한 기자는 기타큐슈에 있는 고쿠라성을 보기 위해 움직였다. 가는 길에는 일본의 전통시장이 있었다. 잠시 구경할 겸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해산물과 육류 채소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은 벽이나 2km 정도를 걸었다. 그리고 고쿠라성에 도착했다. 고쿠라 성은 엄청난 자태를 뽐냈다. 1602년 호소카와 다다오카 영주에 의해 세워진 성으로 중국, 한국, 유럽의 성을 융합시킨 구조의 성이다. 1866년 소실된 성은 현재는 1959년 재건된 천수각만 남아 있었다. 책에서 보던 일본의 전통 성의 모습은 아주 웅장했던 옛 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충분했다. 성 바로 옆에는 고쿠라 정원도 있는데 나무가 우거진 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히 해주기 안성맞춤이었다.

관람을 마친 후 기차를 타고 모지코 역으

권하고 싶은 책

언론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빌 코바치·톰 로렌스틸 | 역자 이재경

| 한국언론재단



"언론의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끌어 들어 부관찰시(剖棺斬屍) 하듯 과거사를 끌어올려 난도질 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일 수가 없다. (중략) 적어도 건전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건전한 이성적 비판과 쓰레기 같은 감정의 배설물 같은 비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제주투데이 김덕남 주필(전 제민일보 편집국장)이 자신의 기명칼럼에 남긴 글이다. 그의 말대로 제주지역의 저널리즘은 위기이다. 다시 그의 칼럼을 보자. "지난해 제주도가 도내 언론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34건에 18억1495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시쳇말로 '돈 받고 조지는 언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어간 씁쓸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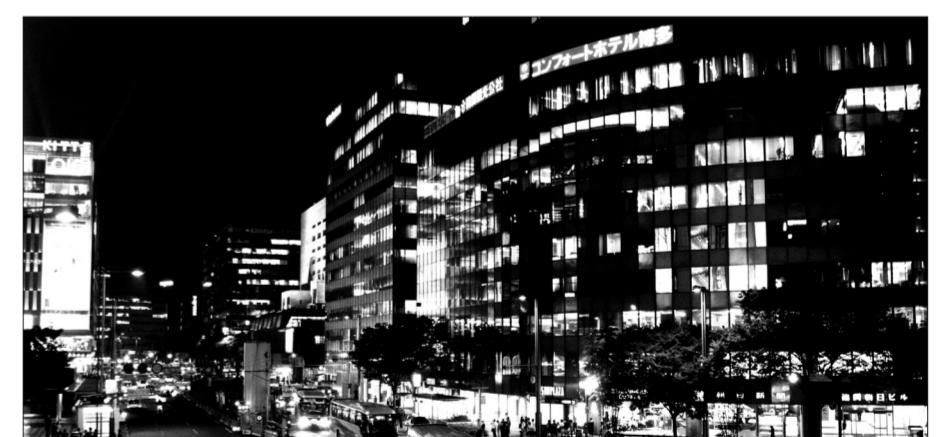
이 대목에서 헛갈린다. 언론이 (정부나 지자체) 돈을 받으면 보도기사를 통해 행정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려 정상(?)이다. 작금의 전국언론의 보도행태가 그러하다. 미디어오늘이 정부부처 언론홍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저널리즘은 다르다. 돈은 돈대로 받고, 비판은 비판대로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기자의 뜻이고, 비판을 하는 것도 기자의 뜻이고 돼버렸다. 그래서 언론의 본령과 사명의 자세로 저널리즘을 하려는 기자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으로 그 짓을 그만두려 한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이러한 속내를 알아차린 이상 더 이상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저널리즘의 정도(正度)를 지켜야 한다. 이 정도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다. 저자들은 책에서 모두 10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2번째, 5번째, 9번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 5번째 <기자들은 반드시 권리에 대한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같은 지자체 역시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흠페이지 만들고 각종 SNS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저널리즘을 공급하며, 보도자료의 제작과 배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협조할 의사가 있는 언론사에게 금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지역언론이 아니라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무수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의 정도를 찾을 해법은 무엇인가?

그 해법이 바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녹아 들어있다. 저자들은 책에서 모두 10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2번째, 5번째, 9번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 5번째 <기자들은 반드시 권리에 대한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언론의 본령과 사명의 자세로 저널리즘을 하려는 기자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으로 그 짓을 그만두려 한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이러한 속내를 알아차린 이상 더 이상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바다 끝 지평선이나 언덕 너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실제로 보



하카타 역에서 바라본 일본 시내의 모습(위).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보관중인 구시다 신사(아래).

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며 주변을 돌아봤다. 규슈 최북단에 있는 이곳에서 혼슈에 있는 시모노세키가 보였다. 또한 혼슈와 규슈를 연결하는 다리도 볼 수 있었다. 일본이 왜 선진국이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모습에 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여유와 선진의식은 아직 따라 가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화 했던 나라에게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멀 곳이다. 기자 또한 일본 땅을 밟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다. 하지만 일본거리를 다니면서 본 일본인들의

김해건 기자

교수시론

홍희숙
의류학과 교수·취업전략본부장

“

취업지원관·글로벌 인턴쉽.

지역산업맞춤 전문인력양성.

기업 채용설명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해

많은 참여 통해 기회 잡았으면

”

내일의 꿈을 향한 '성공취업'

여러분의 도전을 취업전략본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지원합니다

'일취월장' '성공취업' 이것은 취업전략본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학생들의 일취월장 성장은 물론 일찍 취업하여 월급 받고 장가(시집)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이 담겨있다. 그리고 무조건 취업 보다 희망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관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관들은 단과대학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진로상담, 취업 상담을 한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모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실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개별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둘째,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재학생 프로그램과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재학생 대상 6개월 프로그램은 미국(디즈니랜드), 호주, 중국(상해, 청두), 캐나다, 영국으로 파견된다(1학기 선발). 우리대학에서 어학교육(2주)을 거친 후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10주)를 마치고 외국기업(관공서) 한국기업 현지지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방학 프로그램은 미국(뉴욕)과 영국에서 이뤄진다. 이외 만 34세 미만의 졸업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의 일취월장 성장은 물론 일찍 취업하여 월급 받고 장가(시집)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이 담겨있다. 그리고 무조건 취업 보다 희망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관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관들은 단과대학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진로상담, 취업 상담을 한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모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실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개별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둘째,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재학생 프로그램과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재학생 대상 6개월 프로그램은 미국(디즈니랜드), 호주, 중국(상해, 청두), 캐나다, 영국으로 파견된다(1학기 선발). 우리대학에서 어학교육(2주)을 거친 후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10주)를 마치고 외국기업(관공서) 한국기업 현지지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방학 프로그램은 미국(뉴욕)과 영국에서 이뤄진다. 이외 만 34세 미만의 졸업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드와 포스터를 붙이고, 리플렛을 나눠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학과로 공문을 시행하고, 총학생회와 연계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학생 개개인에게도 정보를 보낸다. 올해 초에는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7개 단과대학을 순회방문했다. 취업지원관, 학과 교수님,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체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지원관의 학과 특강이나 학과에서의 프로그램 소개 시간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취업하는 주체는 학생 본인 자신이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발적 적극성이 중요하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4학년은 물론 저학년 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과 미래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학과 게시판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정보들을 매일 매일 읽자. 대학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제주대 소식과 채용안내 프로그램 정보들을 놓치지 말자.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잡카페를 들락거리며 취업전략본부와 친해지자. 작은 수고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금이 오늘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학과의 적극적 홍보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김지영
기자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

에 대한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뒤덮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의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가 타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기사를 자주 봤다. 결과만 본다면 우리나라 학습도는 훌륭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 사교육과 경쟁 입시교육, 입시제도와 정책의 비밀관성이 문제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은 우리나라를 학벌주의 사회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대학은 서열화 됐고, 성적지상주의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엄청난 학업스트레스와 존재감 상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은 주입식의 공부가 아니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닌 상호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독일은 주입식 교육제도의 학문적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로 전쟁과 비상식적 우월주의를 가져왔고, 임금한 교육의 실패를 겪었다. 이후 독일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수의 깊은 사고와 고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상위의 인재가 이루는 큰 성과보다 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몰입하도록 길러내는 것이 현재의 독일 교육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로 도덕은 끝이 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교과서에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지만 결국에는 시험지의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되며 점수로 매겨지게 된다.

경쟁이 무조건 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친구를 견제하고 짓밟는 과열 경쟁에 시달린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을 위하여 있는 학습유형을 가져와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자기고

나를 변화시켜준 학군단 생활

황은석
영어영문학과 3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나는 게으르고 허영에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방황하던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학군단 모집설명회에 가게 됐다. 설명회에서 학군단 생활을 하고 있는 후보생들의 당당한 모습을 봤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를 설레게 했고 학군단에서의 나의 미래를 상상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길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 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학군단에 들어갔다.

처음 시작한 학군단 생활은 쉽지 않았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악숙하기에 힘든 것은 당연했다. 분명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변화시키고 발전하기에 좋은 축제였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벌써 여섯 달을 생활하니 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생겼다. 건강해졌으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이 강해졌다. 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

또한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었다. 항상 다른 부모님들이 이 자신의 자식들을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셨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내가 단복을 입은 사진 속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시

며 응원해주신다.

단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어머니, 친구 분들께 우리 아들 학군단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에 '더 잘해야지,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라고 되뇌면서 이제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돋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감사하다.

학군단을 하면서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다. 학군단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 올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힘든 순간, 즐거운 추억들을 만든 동기들, 많은 것을 알려주면서 때론 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힘든 순간에는 기댈 수 있는 선배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래에 디아이아트를 다는 소위로 임관한다. 디아이아트는 지구 내부에 있는 흑연이 지각 하부의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흑연을 구성하는 탄소의 결합 구조가 바뀌면서 생성된다.

처음에는 흑연과 같이 남들과 다르지 않은 흑연 광석이었다. 하지만 학군단에 들어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발전해 가며 디아이아트가 되어 가고 있다. 나를 변화시켜준 학군단에 여러분들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끝이 났다. 여름의 얇은 웃자림은 내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보니 신체 곳곳이 걱정된다. 복부도 자신이 없지만 특히 어깨가 신경쓰인다. 사람들은 빨래판 복근에서 떡 벌어진 어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어좁이', '어깨강판'과 같은 말들이 만들어졌다.

학교 체육관을 가도 다들 양손 가득히 쇠를 들고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것을 보고 나도 어깨를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어깨를 넓힐 수 있을까?

어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나는 '견갑골' 운동을 시작했다. '견갑골'은 실질적으로 어깨 부위가 아니다. 서울 대병원 신체기관정보에 따르면 견갑골은 등 위의 외쪽에 있는 한 쌍의 뼈로, 몸통의 뒤쪽과 팔을 연결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넓적한 뼈이다. 또한 견갑골은 빗장뼈와 함께 몸통과 팔을 연결하고 힘과 움직임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깨의 근육은 삼각근이라 불리는 근육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어깨의 넓이 그리고 등판의 넓이를 좌우하는 것은 '견갑골' 주변 근육의 발달 정도다.

그럼 '견갑골'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턱걸이로 대표되는 등 운동이다. 등 운동은 직

접적으로 승모근, 광배근 등의 근육들이 운동이 된다. 그리고 운동 과정에서 견갑골 주변의 여러 근육들이 발달되면서 어깨를 넓혀준다. 또한 등 근육이 발달하면 굽은 어깨를 뒤로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곧은 자세로의 체형 변화도 동반된다. 이 운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아주 좋은 운동이다.

한편 보조적으로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켈소 슈리그(Kelso's Shrugs)' 란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상체의 자세를 어지거나 피로누적, 부상에 대한 방지 효과가 뛰어난다.

또한 견갑골이 가능하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실제 어깨 넓이의 확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킴소 슈리그를 통해 발달되는 근육들은 등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체 운동의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킴소 슈리그 역시 일석삼조의 효과를 끼친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매를 가꿔 나갈 수 있다. 태어난 골격이 작다고 좁힐지 말고 좋은 운동은 옳은 방법으로 실행해 서서 우리의 몸을 예쁘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기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신체는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하자.

사설

방법론과 학습공동체 육성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요구받고 있어 대응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직종과 더불어 기술의 변화로 정형화된 학습보다 현장 중심의 학습, 강의식 학습보다 학습 공동체, 지식보다는 방법 강조 등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간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각각의 대학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는 대학혁신, 특성화 사업 등의 유치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기에 이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본

공통으로 방법론을 강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협장에서 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현장 기반 지역 학습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진일보 시킬 것이기에 중요하다. 대학 교육에서 방법론의 강조는 단순한 통계분석이나 실험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분석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금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교육과 훈련보다 보편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경험은 제주의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교우와 학생이 함께 제주 지역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학습공동체 육성은 방법론의 학습과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또한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더불어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경우로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가 된 하수처리 부지, 외국인 범죄, 그리고 지방정부와 국가 모두 주택건설, 관광지 개발, 제주국가정원 조성 등 개발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 전문가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 가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 학습이자 현장 중심의 지역 학습의 장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방법론적 접근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연한 융합적 지식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은 사회의 수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미래 사회의 요구와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대한 대응은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는 것으로, 교육은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대는 이제 성공적인 교육부 사업을 유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과제 수행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기본 방향을 찾아 제주대학교의 기본적 특성화를 평가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지식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을 찾는 노력이 질질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성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주 함께 모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협중’ 분위기 학산과 대처

최근 제주시 한 성당에서 세벽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관광객 전만시대를 맞아 '관광객 총량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사료된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예로부터 제주의 자랑이었던 '삼부'가 이제는 학교 교과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이상 제주는 이전처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곳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동시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민의 적개심이 팽배해져 자칫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 오는 선량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뒤따른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무한정의 작전'으로 작전명을 명명하여 보복전쟁을 시작했다. 테러사건이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포들이 숨죽여 지냈으며 또한 이들은 미국 일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국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

생 수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며, 2016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현황이 586명으로 중국인 학생의 비율이 약 8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몽골 4.1%, 일본 3.4% 순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에 발맞춰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가 '거점국립대'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제화된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더불어 그들을 위한 섬세한 질적 관리가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 따라 제주도 한바퀴

고된 종주 뒤에 찾아오는 제주의 아름다움

최근 자전거를 통해 국토를 종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반응해 전국 각 지역에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한강종주자전거길, 동해안에는 동해안종주자전거길 등 총 13개의 자전거길 코스가 존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 책자를 발간해 자전거길을 소개하고 있다. 각 코스 중간마다 설치돼 있는 인증센터를 찾아가 이 책자에다가 도장을 받으면 종주 완료를 인증받을 수 있다.

제주도도 '제주환상종주'라는 명칭의 자전거길 코스가 있다. 기자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체험했다.

<편집자 주>



태풍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바람의 세기는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는 사람이 끌렸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제주를 방문한 사람의 수는 약 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어느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텐트카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도보, 자전거를 통한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뒤를 쫓아 폐달을 밟아봤다.

◇ 환상자전거길을 통한 제주도 종주 준비

공항에서 약 800m정도 떨어진 자전거 대리점인 '바이크 트립'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리 장비와 종주수첩, 자전거를 대여해 일주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열심히 달리시면 3일, 천천히 달리셔도 4일이면 충분히 종주가 가능합니다" 대리점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종주를 향한 첫 시작을 끊었다.

제주도 자전거 종주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길을 개척해 종주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가는 환상자전거길이 있다. 기자는 환상자전거길을 선택했다. 이 길은 2015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가 개통한 것으로서 총 234km로 구성됐다. 도로 위에 파란색 줄과 표지판으로 구간의 표시가 돼 있고 제주도를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코스다.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를 활용해 제주도 한 바퀴를 모두 일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나가는 곳마다 인증을 남길 수 있는데 디락쉼터, 해거름마을공원, 송악산, 법

환바단, 쇠소깍, 표선해변, 성산일출봉, 김녕 성세기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용두암 부스 등 총 10개의 스템프를 모두 찍으면 용두암 인증센터에서 종주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 해안으로 이동하는 제주환상종주 첫 코스 출발 후 가장 먼저 스템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은 애월의 해안도로에 있는 디락쉼터이다.

목적지까지는 약 21km정도인데 일주도로와 해안도로를 반복해 가는 코스다. 타면

서 느낄 수 있는 바다의 냄새와 시원한 바람은 자전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전거길주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서 만난 자전거들은 서로 동질감을 느꼈는지 인사를 서슴없이 나눴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등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서울에서 단체로 온 한 일행은 "긴 연휴를 맞아 명절을 보내지 않고 친구들과 우정 여행을 했다"며 "바다냄새를 맡으며 해안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처음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이번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직장생활에서 잠시 탈피해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타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외에도 달리면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 낚시를 하는 친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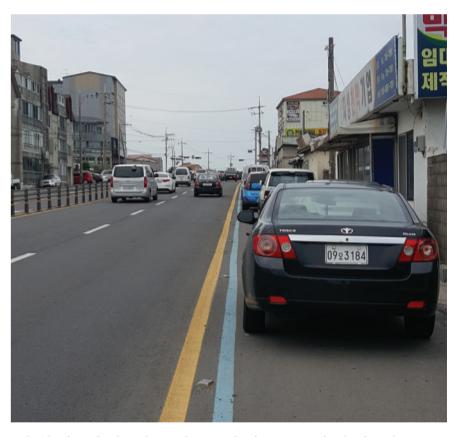
그렇게 1~2시간쯤 타니 어느덧 자전거는



기자가 직접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을 체험하면서 받은 도장이다.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 제1코스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디락쉼터까지 총 21km이다. 코스 중간마다 남은 거리가 적혀 있다.



자전거 길이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는 모습. 일반 차도로 우회해야 돼서 위험하다.

전거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위험하다"며 "또한 해안도로 위에는 어촌에서 말리고 있는 소라, 다시마 등 때문에 길을 피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막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졌다. 또한 표지판도 둑쭉날ც하게 배치돼 있어 처음 보는 길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됐다.

제주도 자전거 종주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누군가는 "그 힘든 일을 왜, 어떻게 하나"며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경험해본자들은 하나 같이 외치곤 한다. "자전거 종주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이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기 위해 집에 있는 자전거를 끌고 종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해건 기자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어둠 속의 등불."
"시대의 깊잡이."
"세상을 보는 눈."

'언론' 言論

진실의 펜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손 끝에서
일만아라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자격요건
1학년 또는 2학년 학부생

지원방법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커뮤니티 > 알림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려 받아 출력 및 작성 후 신문사에 제출

제출기한
10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활동혜택
장학금과 취재수수료,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
취재시진 교육 및 해외원정 취재 기회제공

지원문의
010 8916 0309
제주대신문사 편집국장

영화평 '러덜리스'

강한 여운이 남는 부성애를 다룬 음악영화

한참 음악 영화가 유행했을 때 <비긴 어게인> <위플래쉬>를 이을 진짜 음악 영화라는 컨셉으로 홍보 됐던 영화가 있다. 같은 음악 영화지만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폐막작으로도 상영된 바 있다.

러덜리스(rudderless)는 키를 잃은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샘(빌리 크루드)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영화는 잘 나가는 중년의 광고기획자 샘이 어느날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아들 조쉬를 잃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유토에서 부랑자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중 전 아내가 가져다준 집에서 아들이 만들고 부른 곡들로 CD와 가사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추어 뮤지션이 노래하는 솔집 틸립에서 아들의 노래를 부르고, 이를 들은 청년 쿠엔틴(안톤 엘친)은 샘에게 함께 음악을 하자고 제안한다. 우여곡절 끝에 밴드는 '러덜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들은 높은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 하지만 아들의 전 여자 친구가 나타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밝혀져 밴드는 해산된다.

러덜리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음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는 여느 타 영화의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 영화만의 차이점은 영화 중 후반부에 등장한다.

대학에서 다른 아이들을 6명이나 죽이고 자살한 학교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아들 조쉬와 그런 아들이 작사·작곡한 노래라는 것을 숨기고 대중 앞에서 부른 아버지. 영화는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입장장을 크게 고려해주



러덜리스 영화 중 한 장면. 주인공이 관객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지 않는다. 샘의 아들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아버지 샘의 관점에서 영화를 느낀다면 형용할 수 없는 멱먹함을 가져다 준다.

주인공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든 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영화는 음악이라는 주제와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주제를 함께 제시한다.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아들과 그 뒤에 따라오는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건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화의 마지막,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던 샘은 처음 노래를 불렀던 솔집에서 자신의 사연을 밝히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숨을 죽인 채 듣는다. 아들이 완성하지 못한 노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완성시킨 노래 'Sing Along'의 가사 중 "만약 어딘가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같이 불러 다오 내 아들아"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떠난 아들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메시지가 전해진다.

김지영 기자